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2, 2017 Vol. 564

남가주 지역의 한인 목회자들이 설을 맞이해 조찬기도회를 드렸다.

기도의 빛 발하는 남가주목사회 되길

설 맞이 조찬기도회 열고 한 해 사역 위해 기도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설을 맞이해 함께 기도했다. 1월 30일 LA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는 목회자 부부 30여 명이 참석해 예배 드리고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한기형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는 "빛을 발하라(사60:1-3)"는 설교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 사역의 동력이 되어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빛을 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목적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남가주교협 강신권 전 회장, 대한인국민회 권영신 이사장도 참석했다.

이날 목사회는 광고 시간에 오는 삼일절 기념감사예배를 3월 1일 오후 3시에 "탈북민 한국 방문 돕기 자선기금 모금 음악회"와 함께 드린다고 전했다. 남가주 내 탈북민들의 한국 방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 음악회에는 '통일앙상블 원'이 출연한다. 이들은 남한의 전통악기, 북한의 개량악기와 서양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팀으로 삼일절을 맞이해 통일의 염원을 음악에 담을 예정이다. 또 정신여고 동문합창단과 솔리스트 사라 정 씨도 출연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도 초대되며 설교는 피종진 목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가 전한다. 장소는 미정. 김준형 기자

트럼프, 핍박받는 기독교인 난민들에 입국 우선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핍박을 피해 온 기독교인 난민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난민과 비자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미국 입국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무슬림들에겐 그렇지 않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는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난민들을 바로 입국시키지 않고 120일의 유예 기간을 준 뒤, 그 기간 동안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는 총 84,995명의 난민들이 입국했고 이들 중 12,587명이 시리아에서 왔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올해 총 11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수를 약 5만 명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크리스천포스트는 관련 기관(Refugee Processing Center)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해 미국 입국이 허용된 시리아 난민들 중 98%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들이었다. 반면 기독교인 난민은 0.5%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김진영 기자

분열됐던 남가주교협 통합

최순길-김재율 공동회장 체제로

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통합을 약속했다. 1월 25일 최순길 회장 측과 김재율 회장 측은 교협 사무실에서 만나 〈통합 협정 약정서〉에 서명했다.

최순길 회장과 김재율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통합을 이끌어냈고 이제 한인교회와 미주 한인동포사회에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남가주교협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린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제46대 강신권 회장과 김재율 당시 수석부회장 측은 서로 간에 임원을 영구제명하고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결국 각각 제47차 총회를 열게 되면서 강신권 회장 측은 최순길 목사를 제47대 회장으로, 김재율 수석부회장 측은 그를 그대로 회장으로 선출했다. 분열된 후 제47대에서도 정통성을 놓고 양측은 법적 갈등을 겪었다.

이번 약정에 따르면, 양측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통합 이전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측이 갈등을 겪으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이 임원 임면(任免) 문제였기에 양측의 현재 임원을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최순길 회장과 김재율 회장은 공동회장이 되고 수석부회장은 최 회장 측의 김종용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김 회장 측은 아직 수석부회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기 교협을 이끌 수석부회장 건은 큰 탈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통합과 관련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통합을 이룬 당사자인 최순길-김재율 회장 즉, 제47대 간에 걸려있던 소송들은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신권-김재율 회장 즉, 제46대 내의 소송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재율 회장은 "제가 먼저 '소송을 취하하자'는 요청을 드릴 용의가 있다. 저는 이번 통합의 당사자로서 모든 소송을 취하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순길, 김재율 회장은, 각각 임원회를 통해 통합을 결의하고 추진하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별도의 총회를 개최했던 양측이 통합총회나 임시총회 없이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도 논란이다.

최순길 회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가주교협이 분열되었다가 통합될 때 총회를 거친 적이 없었다. 이것은 관습법이며 관례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협은 교회나 교단이 아니다. 이번 통합은 지금까지 교협이 해 왔던 방법을 채택했다"고 했다.

김재율 회장은 "합법적 통합이냐, 불법적 통합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합법적 분열이었냐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양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이미 다 판결을 받아서 사회법적으로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 받았는데 굳이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지금 통합이 불법이란 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또 김 회장은 "양측의 서로 다른 정관에 관해서는 향후 임시총회를 열고 개정할 수도 있으나 지금 정관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다음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통합의 적법성은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 우리가 오히려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강신권 회장 당시 총무로 활동하다 김재율 회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영구 목사는 "제47대는 제46대 교협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제46대의 과거 역사를 간과하는 제47대는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인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교협과는 어떤 교류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각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기독일보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LAFGC
주일 대예배
1부 오전 7:40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열린예배) 오전 11:45 본당
4부 (조용기 목사 영상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예배 모임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2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3-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3부 예배)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EM CAM(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토요일 19:0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남가주교협이 신년하례예배를 30일 오후 6시 나성소망교회에서 드렸다.

통합된 남가주교협, 신년하례예배 드려

교계 단체 지도자들 참석해 축하하고 격려

분열되었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통합된 후, 신년하례예배를 함께 드렸다. 1월 30일 나성소망교회에서 드린 예배에는 6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참석해 남가주교협의 통합을 축하했다.

최순길 공동회장은 "그러나(욥 16:17)"란 제목의 설교에서 "이제 교협이 하나되어 나아갈 것이다. 욥이 자신의 기도가 정결하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류당열 목사, 지용덕 목사, 최학량 목사 등 교협 전 회장들이 참석해, 하나된 교협에 힘을 실어주었고 특히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 김기동 목사가 축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OC교협 이사회는 남가주교협이 분열되자 "OC교협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남가주교협이 통합될 때까지 교류를 보류하자"는 안건을 OC교협 총회에 상정했다. 이에 OC교협은 11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공식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남가주교협의 이번 통합 소식에 OC교협 이사장이 직접 하례예배에 참석한 것이라 김기동 목사의 축사는 의미가 남달랐다. 김 목사는 "남가주교협이 다시 하나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OC교협과 남가주교협이 협력해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LA한인회의 제임스 안 이사장, 미주한인재단 LA의 이병만 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김영대 전 회장도 참석해 축사 혹은 격려사를 전했다.

김재율 공동회장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아직도 두 단체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지만, 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최순길 공동회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증보판 발간

송정명 목사 담임 은퇴 후 사역 담아
2월 18일 출판 기념 음악회

1월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정명 목사가 출판 소감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 기독교계의 대표적 지도자인 송정명 원로목사(미주평안교회)가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증보판을 발간했다. 2013년 처음 발간된 이 책은 송 목사의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식과 함께 발간돼 당시 출판기념회도 겸했었다.

2016년 11월 발간된 증보판에는 초판에 비해 70여 페이지의 내용이 추가돼 있다. 바로 송 목사가 담임에서 은퇴한 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과 미주복음방송 사장으로 사역한 스토리들이 더 들어갔다. 송 목사는 "이민 목회 현장으로 나가게 될 신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금방 책이 동이 났는데, 책을 구하고 싶다는 문의가 자주 들어와, 은퇴 이후의 사역까지 포함해 증보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송 목사는 1989년 미주평안교회에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24년을 섬기는 등 40여년 간 목회했다. 은퇴 후에는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을 맡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북한 구원을 위해 사역하는 그날까지선교연합에서도 공동 대표로 섬기고 있다.

송 목사는 "출판기념회같은 거창한 행사를 극구 사양했지만 동역자와 후배들이 음악회를 겸한 출판기념회를 준비해 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2월 18일 오후 5시 글로벌메시아미션 주최, 월드미션대학교·미주평안교회 주관으로,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출판 기념회에서는 박희민 목사가 축사하고 남종성 교수가 독후감을 전하며, 최문환 장로가 인사말을 한다.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 월드미션대학교 합창단, 정창균 목사, 소프라노 신선미, 미주평안교회 성가대, OYOC챔버콰이어 등이 출연한다.

김준형 기자

이민교회 문제점 2위 비정상적 목사 안수… 1위는?

LA 기윤실 신년 기자 간담회서 기자들 상대로 설문

LA 기윤실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LA 지역 기독언론사 및 일간신문사 종교부 기자 등 종교 관련 언론인 8명을 초청해 1월 26일 LA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박문규 실행위원이 허성규 대표에 이어 신임대표로 취임한 후, 기윤실에 대한 언론계의 평가와 조언을 듣는 자리였다. 박 대표는 "어떻게 하면 기윤실이 기독시민운동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여러 언론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 대표 외에, 허성규 전 대표, 조주현 간사, 이현준, 나기웅, 데이빗 안 실행위원, 설립자인 유용석 실행위원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기자들은 기윤실의 교회 개혁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미진하다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간담회에 앞서 기윤실은 기자들에게 '기윤실이 꼽은 이민교회의 문제점 13가지'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설문 조사했다. 8명의 기자 모두 목회자의 지적·도덕적·영적 자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 다음 5명이 목사 안수 과정의 비정상화, 3명이 교단·교회·연합단체의 비윤리성을 꼽았다.

이 3가지 외에 기윤실이 꼽은 나머지 10가지는 교회 분쟁, 성직자 중심의 교회 권력 구조, 재정적 불투명성, 기복 신앙과 기복 설교, 이민법·세법 등 현행법 위반, 개교회주의와 교인 빼 오기 및 교회들의 과잉 경쟁, 교회 밖 사회에 대한 무관심, 직분의 감투화, 교회 내의 부유층·지식층 우대, 신학교 난립 등이었다.

조주현 간사는 "올해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건강교회학교를 시작해 재정, 운영, 관리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활동을 벌인다.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LA 기윤실은 1993년 창립돼 지난 20년간 정직하고 검소하게 나누며 살자는 생활신앙운동,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 건강교회운동, 북한을 돕는 동족사랑나눔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준형 기자

한인가정상담소가 음력 설을 맞이해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인가정상담소 설 잔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음력 설을 맞이해 1월 25일 설날 잔치를 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새해 소망을 담은 등불을 밝혔고 한국 전통 설날 게임을 즐겼다.

또 떡을 함께 먹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건강한 한인 가정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기독일보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뱅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무료전화 1-877-580-2424 사우스베이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나성동산교회 교인총회 열고 독립교단 결의

박영천 목사, 담임으로 만장일치 결의
새 임원진 구성 … 선교 제일주의 선포

나성동산교회 교인 일동은 1월 29일(주일) 오후 12시 교회 본당에서 교인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박영천 목사를 담임으로 결의, 추대하고 독립교단으로의 출발을 선포했다.

이날 나성동산교회 교인총회에서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담임목사 선출을 둘러싼 내홍을 종식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를 제일 원칙으로 삼겠다는 개혁적 결의가 선포됐다.

교인총회에는 교회 재적 126명 가운데 102명(위임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영천 목사 담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나성동산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의 △나성동산교회 임원진 인준.

한편, 박영천 담임 목사와 함께 교인총회에서 인준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선교부 갈해수 장로 △교육부 양미자 권사 △재정부 강수철 권사 △문화부 미영 코바 권사 △예배부 한명득 권사 △사회봉사부 조영애 권사 △관리부 전상호 권사 △총여선교회 전순임 권사 △총남선교회 박승호 권사 △청장년회 앤디리 집사.

총회는 〈나성동산교회 선언문〉을 통해 교단의 정쟁에서 벗어나 선교 제일주의를 표방하겠다는 교회의 입장을 선포했다. 이날 결의와 선언은 LA지역 선교의 중심축 역할을 감당해왔던 나성동산교회의 선교 역량이 다시금 되살아 날 것으로 전망되어 교계의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켰다.

특히 교인총회에는 1981년 나성동산교회를 설립한 한은우 원로목사가 참석하여 교권 다툼을 지양하고 선교 제일주의를 선포하는 교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교인총회를 마친 후 갈해수 장로는 "나성동산교회는 기감 미주연회 내에서 교회의 선교와 지도력 측면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으나, 지난해 초 담임목사 은퇴와 관련하여 후임자 선정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어왔다"며 "박영천 목사의 부임 후 교회의 내홍은 차츰 진정세에 접어들었고, 전임자 사건 당시 교회를 떠났던 일부 교인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안정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애당초 담임자 임명을 기다리며, 유지재단 설립에 협조하고, 부담금 납부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며, 연회에 협조적이었던 나성동산교회 관계자들은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연회 행정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미주연회 감독은 1월 31일까지 박 목사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행정명령을 발송했고, E 목사가 이끄는 구 뉴욕 연회 측 지도부와 L 목사를 중심으로 한 LA연회측 지도부가 작성한 합의문서의 내용이 밝혀졌다.

바로 "박영천 목사는 2018년 연회까지 자원 은퇴하고, 후임자는 구 뉴욕측에서 선정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회 재산은 연회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괴문서가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떠돌았다.

교회 측은 지금까지 교단의 치리가 법과 원칙에 따르기보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보고 있다.

우선 교단의 경우, 기소단계에서 고발된 대부분이 불기소사항이고 사소한 한두 가지 사항을 기소하여 가벼운 견책 정도에 그칠 것을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총특재)가 무리하게 당부재판이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고발하고 면직판결을 유도했다. 이에 박 목사가 상급심에 상고하자마자 위원회를 해산했다.

후에 총특재 위원장이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화해를 유도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자 사퇴, 은퇴한 역사가 엄연히 남아 있다.

박영천 담임목사

박영천 목사는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와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 무근의 감정적인 여론재판을 펼치는 부분은 시정되는 것이 선교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선교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의 온도 차의 균형을 잡고 박 목사와 미주연회 측 관계자는 교인들과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대화해 왔다. 여기에 민사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박영천 목사가 나성동산교회의 담임에 임명되는 것이 기감 장정상 문제점이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세력, 각종 당사자들의 말 바꾸기 등은 사태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강수철 권사는 "우리 교인들은 수차례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담당자에게 요구하였으나,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인사들의 악성 여론을 핑계 삼아 박영천 목사에 대한 담임 임명을 미루어왔고, 이에 대해 교인들의 실망감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각종 이권에 한눈을 팔고 있는 지방회와 연회의 일부 목회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들의 엉망인 목회현장을 돌아보면 이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경숙 권사는 "교회를 선교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권세력 장악의 도구로 삼는 행위가 드러났으며, 일부 인사들의 그런 행위는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교인총회를 이끌어 낸 이유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교단 관계자에 의하면 "나성동산교회가 교인총회를 열어 독립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총회와 연회의 비정상적인 개입과 교권다툼이 실질적 원인이며, 역량 있는 개체교회를 선교적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고,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만일 나성동산교회 교단 독립 선언이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소위 미자립 상태의 이름뿐인 페이퍼 처치의 실태 처리 문제, 윤번제 감리사, 감독 선출에 따르는 부작용 등 미주연회 내 산적한 행정 문제에까지 법적 시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나성동산교회 임원진은 미주연회 등의 반발이나 법적 공방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순임 권사는 향후 전망에 대해 "우리 교인들의 선교 열정은 뜨겁다. 정치적으로 나성동산교회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의 가슴 속에 무슨 꿈이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 교인들의 꿈은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한 이웃 교회와 동역자가 되어 선교하는 것이다. 나성동산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와 함께 선교 협력을 공유하면서 비전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재민 권사는 "한동안 마음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며 "매주 박 목사 설교에 대해 험담하고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라는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예배에 나와 보니 듣던 말과는 전혀 딴판이라 매우 놀랐다"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했다고 했다.

나성동산교회 선언문을 살펴보면, "1981년 한은우 목사가 교회를 설립할 당시 독립교단으로 운영키로 한 결의를 회복하여 감리교회의 신앙전통을 지켜나가는 한편, 선교적 관계를 제외한 일체의 행정이나 정치적 관계 등에 있어서 연회와 총회와는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결의"한다며 설립 초기의 초심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1월 29일 열린 교인총회 모습.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4

이스탄불 앞 바다 부육아다섬 기도사역

한 마디로 신기한 체험이었다. 2013년부터 참가했다. 4월 23일. 언제부터인가 이스탄불 앞 바다에 있는 부육아다섬(큰 섬이란 뜻)으로 그날만 되면 수만 명의 터키 현지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섬으로 몰린다.

섬은 산처럼 오르는 길로 되어 있는데 산 정상에는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예배당이 있다. Saint George Church이다. 분명 기독교 교회였다. 이슬람 국가라 자처하는 터키에서 그것도 최대의 도시인 이스탄불 앞 바다의 한 섬에 무슬림 현지인들이 몰리는 이유는 그 교회로 가서 그리스도인 사제에게 기도를 받고자 함이다. 참으로 기이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시작은 이렇다. 우연히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한 현지인이 그 섬에 와서 산 위에 올랐다가 정교회를 보고 들어가 사제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받은 후에 그 병에서 완치되었다 한다. 그것을 계기로 그 교회는 신령한 장소가 되었고, 매년 4월 23일을 전후로 많은 병자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각종 기도제목을 갖고 현지인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정교회 사제들이 자기들로는 몰려오는 현지인들을 다 기도할 수 없어서 그 지역의 현지인 개신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같이 기도사역할 것을 제안했고, 현지인 개신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인파로 인해 터키 선교사 협의회에 같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 터키 선교사 협의회에서 또 다시 한인 선교사들에게 기도사역자들을 동원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었다.

나도 그런 계기로 참여하였는데 이른 아침 8시 정도부터 해가 질녘까지 근 10시간 정도를 기도받기를 원하는 현지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목청이 상할 대로 상했음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몸을 가만두질 않았다. 기도하기 전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들에게 물었다.

"나는 그리스도인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안다. 해 달라"고 말했다. 그때 기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짧게 그들에게 증거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등으로 전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우는 이들이 있었다. 영접이 일어났다. 그런 영혼들 앞에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던 기도자들도 같이 울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 오는 그 감격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하게 했다. 같이 울고 같이 영접기도까지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올해도 4월 23일에는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 수백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육아다섬을 오를 것이다. 물론 현지인들의 수만의 인파를 다 축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글을 하나님의 인도로 읽게 되시는 지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도 그 거룩한 현장을 밟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몰려 오는 터키 현지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선교에 교회와 성도들 특히 부르심을 입은 목사님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팜스프링스한인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

팜스프링스한인교회 12주년 맞이해

팜스프링스한인교회(담임 최승목 목사)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축하 예배를 드렸다. 금년은 외부 손님을 부르지 않고 지난 시간들의 열매와 결산을 돌아보는 취지로 온전히 자체 행사로만 구성했다. 이 교회는 2005년 1월 30일 첫 공식 예배를 드린 이후로 2014년 부활절에 성전을 구입하고 지금은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운영하며 미국인과 영어권을 위한 다민족 예배까지 드리고 있다.

팜스프링스한인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열매 중 하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통해서 매일 예배, 매일 성경 공부,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원서 완독 교육과 성서 해석 교육도 특별한 점이다. 이번 12주년 예배에서는 이 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찬양을 불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12년간 이 교회가 큰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비결에 대해 최승목 목사는 "감리교 4대 규범이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신앙고백을 추가했다. 신앙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즉, 간증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민족을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목회자 양성 그리고 성도들의 제자화와 문서 사역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교회는 '내륙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팜스프링스에서 말 그대로 사막에 생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팜스프링스한인교회는 LA에서 2시간 동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미국인들에겐 '천국 밑의 도시'로 불리며,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나성한인교회 실버사역 소망아카데미

나성한인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소망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 26일 첫 모임에서는 신동철 담임목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란 설교를 전했고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이기정 장로가 소망아카데미를 새롭게 열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풍성한 식사와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고, 한인타운 차량운행도 가능하다.

첫날은 이영옥 권사의 활기 넘치는 건강댄스로 어르신들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유익종 장로가 '100세 이상을 보장하는 습관'을 강의했다. 은퇴하지 마라, 매일 치실을 쓰라, 몸을 움직여라, 아침에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라, 6시간 이상 자라, 자연식품을 먹어라, 예민해 지지 마라, 규칙적인 생활하라, 사람들과 교류하라, 성실하라 등이었다. 한의사인 유 장로는 매주일 본 교회에서 의술로 봉사하고 있다.

나성한인교회 소망아카데미 건강댄스 시간

소망아카데미 등록 문의는 김만식 행정목사(323-221-9531) 혹은 이기정 장로(818 441 2300)에게 하면 된다.

교회 주소) 2241 N. Easter Ave. Los Angeles CA 90032

권쉘비 기자

은혜동산 10기 열린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서 탈북자를 위한 10기 은혜동산을 개최한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중보기도자와 팀멤버 미팅이 있다. 이번 10기의 총책임자는 박한진 장로이다. 지난 월요일 미팅에서 박한진 장로는 "우리가 섬긴 탈북자들이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큰 사역자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팀 멤버로 섬기는 이들은 탈북자들이 결혼할 때, 북에 있는 부모를 대신해 결혼식에 참석해 부모 역할도 해 준다"는 미담도 전했다.

은혜동산 준비를 위한 모임이 열리고 있다.

권쉘비 기자

갈렙의 신앙성과

여호수아 14:6-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여년간 짓밟혀 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기 시작하시고, 유월절이 있은 후 광야로 삼일 길을 걸어갔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지 2년쯤 되었을 때 바란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12지파중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가나안으로 정탐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는 길에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중에 절반이 그곳의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지파에 속한 후손인데 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왕 바로의 무서운 채찍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해방의 기쁨을 안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일동안 정탐을 마친후 돌아와서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합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자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하며 그 땅을 악평하며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의 말과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말과 행동을 보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열 지파 족장들은 매사에 절망을 앞세우는 비관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시도해 보기도 전에 불가능이라는 생각 속에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보살피심을 받아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2년여를 광야 생활을 통해 먹고 입을 것과 건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경향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죽어있고 그들의 앞날은 절망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 노력에 기대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는 산 믿음의 자세만 확실하면 필요한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고 뒷바라지 해주신다는 믿어지는 믿음의 소망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이미 그 모든 준비를 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충정을 다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란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민14:1-4)" 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보고에 절망을 나타내는 무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절망이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죽음을 부르며 죽음에 젖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 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나머지 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14:7-9)"고 호소합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믿음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많은 시련과 환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믿음을 더욱 믿어지는 연단으로 훈련시켜 오셨으며, 나를 두고 택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정하신 용도사명에 대한 기대를 가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저절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바뀌어져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에도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길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민14:11-12)"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민14:13-19)"라고 지혜롭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14:20-24)"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와 축복이 한꺼번에 구분되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구원의 온갖 이적기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독하게 믿어 살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성과로 결실할 수 있는 영생복락의 후사가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문은 열심히 드나들지만 결국 신앙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꾸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많은 이적기사를 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은택에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뜻과 반대되는 불신앙을 생활의 철학으로 알고 잘못 사는,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시킬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36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정탐한 내용을 말했고 결국 그는 그의 발로 밟은 땅을 하나님이 챙겨 차지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축복을 자녀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몫을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 자기 자신만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죄 값을 무거운 짐으로 물려주고 저주를 남기고 떠나야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갈렙의 신앙성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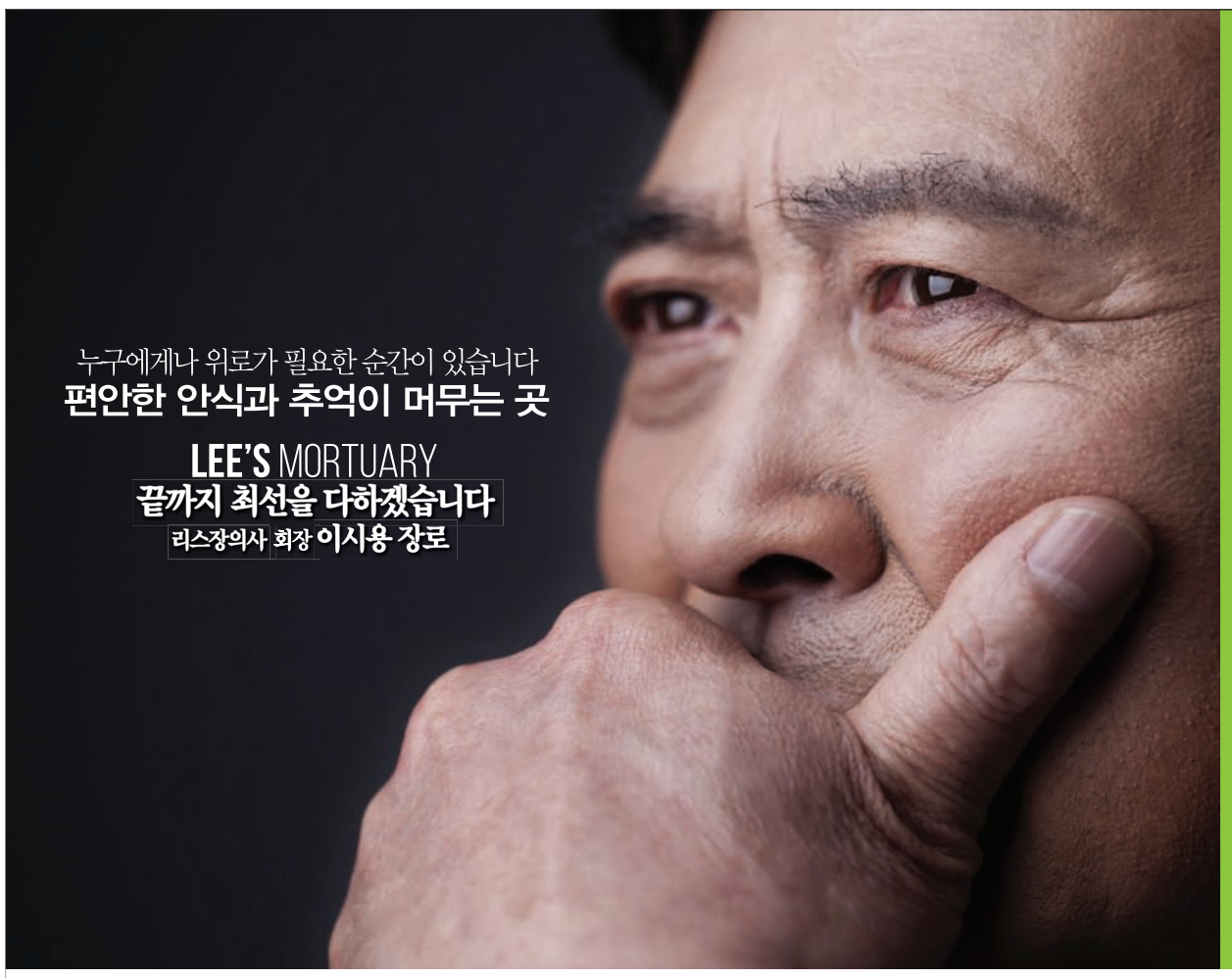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당신의 수많은 가능성은
더 큰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1966년 설립된 FERRARA 장의사가
리스장의사를 통해 아시안 시장진출을 앞두고
성실하고 마음이 따듯하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직원 및 협력업체 모집 공고

신입 및 경력직 채용 중국어 능통자 우대

간단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서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지도사] — 3명
[장례보험설계사] — 0명
[장례영업사원] — 0명

협력 업체

회사 소개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모집분야] 비석, 관, 묘지, 꽃, 사진, 쥬얼리, 각종인쇄

이력서 제출 HR@leesmortuary.com

왜, 리스장의사 일까요?
- 최소 10% 이상 저렴한 비용을 약속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 고인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무료 출장 서비스
- 1966년 부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완벽한 장례서비스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Tel (714) 639-2711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Since 1966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자격요건
1. K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 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이(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 각 1부
2.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 각 1부
3. 신앙 간증문(성장과정과 신앙생활), 본인 및 사모와 가족 소개 – 각 1부
4. 목회 비전과 철학 – 각 1부
5.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 또는 USB – 각 2부
6. 추천서 2부(추천인 및 봉투 날인 요망)

제출일시
2017년 3월 3일(금요일) 까지

제출처
성광장로교회 청빙위원회(1359 W. 24th St. Los Angeles, CA 90007)
연락처: T(323)539-0541, T(213)905-9084(9am~12pm)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상기 주소로 일반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통지합니다.

굴러온 쓰레기통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바람이 몹시 불었던 그 다음날 새벽, 교회 가는 길에 예전과 같이 쓰레기통들이 여기저기 넘어져 있었다. 가다가 보니 파란색 쓰레기통 하나가 길 중앙에 있는 것이 보였다. 내려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갈 것인가? 잠깐 고민을 하다가 자동차를 옆으로 세웠다. 그리고 내려서 길 중앙에 있는 그 파란 쓰레기통을 옆 잔디위로 옮겨 놓았다.

그 이유는 내가 먼저 지나간 그 길로 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니 자동차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부지런해서도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도 아니었다. 당연한 생각이었고 또한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뿐이었다. 그날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길로 운전해서 왔을 성도들이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가 생겼다.

우리 모두 세상에 살면서 가는 길들이 있다. 믿음 역시 길이다. 그 길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분명히 있는 길이고 주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14절에서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과 같이 달린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없지만 그가 달려간 믿음의 삶이 확실한 길이 되어 지금 나에게까지 분명한 길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 준 셈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달리기 경주와 같고,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다시 걸어가며 더욱 확실한 길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내가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치우기도 하고, 길을 고치기도 하며, 더 잘 달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그 때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가 지나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더 멀리 그리고 더 힘 있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눈앞에 있는 바람에 굴러다니는 쓰레기통과 같은 영적인 장애물들을 잘 치워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에 되풀이 되는 부딪힘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달려 나갈 수 있을 것을 믿는다.

인내하면 성숙하게 됩니다

김 영 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제가 어렸던 시절, 제 또래의 아이들 책상 앞에는 으레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얼마나 쓴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런 경구(警句)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내는 정말로 씁니다. 곰의 쓸개만큼이나 씁니다. 인내는 밖에 나가 놀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유혹들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은 웬만한 인내가 아니면 일궈낼 수가 없습니다. 원수에게 이를 이로 갚지 않고 눈을 눈으로 갚지 않기 위해 참아내는 인내의 쓴 맛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혀를 깨물어 피를 삼키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참아내는 인내의 쓴 맛도 아무나 맛볼 수 없습니다. 인내는 정말로 씁니다.

그토록 쓴 인내를 끝까지 뱉어내지 않고 꿀꺽 삼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훗날 출세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열매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인생"은 언제나 경제적 수입, 사회적 직위, 의식주의 질, 또는 출신 학교와 거기에서 얻은 학위로 해석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인내의 열매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야고보서 1:2-4)

야고보 선생은 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그 정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48). 그런데 계속하여 인내하다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내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거룩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이 최근에 거룩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부족하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가진 까닭에 거룩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들이 출판되면 구입해서 읽어왔습니다. 거룩에 도움이 되는 영적 훈련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거룩은 제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칭의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입니다(롬 5:1, 9).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씨름해야 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왠지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제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인 제가 거룩하지 못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거룩하라고 외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룩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이 있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자주 나눠야 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사 64:6).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실 때 예수님의 거룩함도 함께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와 거룩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의나 거룩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고전 1:30-31).

둘째,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서 선택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한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를 성도(聖徒)라 부릅니다.

셋째, 거룩은 정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더럽지 않습니다. 거룩은 깨끗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성도라고 부르신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몸을 정결케 하듯이,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듯이,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聖化, sanctification)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거룩한 은혜의 수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룩해집니다(요 17:17). 기도를 통해 거룩해집니다(딤전 4:5). 성령님의 거룩케 하심을 통해 성화됩니다(벧전 1:2). 경건의 훈련을 통해 거룩해집니다(딤전 4:7). 회개를 통해 거룩해집니다(요일 1:7, 9). 고난을 통해 거룩해집니다(시 119:67). 사랑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참된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요일 3:1-3).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성화됩니다(딤후 2:22).

넷째, 거룩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아름다움은 매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누군가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긍휼히 함께하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죄인 속에 담긴 거룩함의 씨앗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유쾌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외식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거룩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거룩은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영화로움에 이르는 비결입니다(롬 8:30). 거룩은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길 빕니다.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WHO is he?
개발자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Cr Zn Cr Zn Z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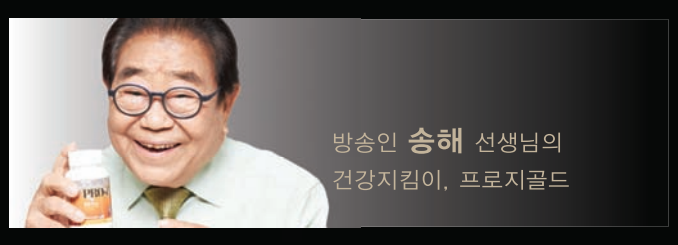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청소년들, 포켓몬Go 잡으러 교회에 찾아와"

'열두 제자 이름' 붙여 친숙함 유도… "마성적인 힘" 비판도

한국에 상륙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Go)'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주로 청소년 사역자들 중 이를 적극 활용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1월 31일 SNS에서는 한 평신도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포켓몬 체육관이 생겨서, 어제 청소년 4명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했다"며 "그 4명의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린다"는 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 청소년들과 사역하면서 '새벽기도 후 포켓(몬고)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새벽기도에 참석한 아이들과 차를 타고 포켓스탑들을 돌면서 아이템을 얻는 것. 이 사역자는 "확실히 '포켓몬Go는 대단하다"며 "이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간과해 버린다면 청소년들에게 큰 이슈를 놓쳐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는 '새벽기도+아침식사+포켓투어+등교길 운행' 패키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청소년 사역자 나도움 목사는 포켓몬Go의 캐릭터들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비롯해 네피림, 아슬란, 삼손, 요나 삼킨 물고기, 골리앗, 바울, 익투스 등 기독교 명칭들을 붙여 닉네임처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를 본 사람들은 "포켓몬을 통해 열두 제자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면 이득", "사소한 부분까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느껴졌다", "본질이 중요한 것"이라며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었지만, "당황스럽다", "몬스터에 어떻게 열두 제자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는 부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나 목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포켓몬 이름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바꾼 것이 당신이 느끼기에 악하고 신성모독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나 목사는 "사람마다 이해의 정도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문제인가"라며 "이런 것에 신성모독 같고 악하다고 느낀다면, 최근 열풍이 불었던 tvN 〈도깨비〉 같은 드라마도 사악한 드라마여서 보면 안 될 것이다. 도깨비든 귀신이든, 전생이든 환생이든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별돼야 하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단순하게 세상 문화나 도구, 게임들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구별됨을 이룬 것이 아니다"며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구별됨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단순히 포켓몬 이름을 성경 이름들로 바꾸었다고 악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나 목사는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그렇지 못하다'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이유와 방식은 안타깝다"며 "세상 문화든 게임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단순히 안 보고 안 듣고 안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에 열광하는지, 이를 통해 요즘 사람들은 어떤 관심과 필요를 느끼는지 돌이켜 보고,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관계와 관심 분야의 접촉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도움 목사가 이름붙인 캐릭터 닉네임.

그는 "내가 아는 한 친구는 게임을 좋아해 게임방에서 밤새워 놀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한 전도사님이 다가와 '우리 같이 게임하러 피씨방 갈래?' 하면서 함께 밤을 새며 게임하곤 했다"며 "그 친구는 처음에 '뭐지? 이 전도사님은?' 하고 생각했지만, 같이 놀고 함께하다 보니 마음을 열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청년으로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도움 목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게임 이름 이렇게 바꿨다고 분노하시고 뭐라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악하다고 평가하는 건 필요 이상의 반응 아닐까"라고 전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라며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다' 하시는 영역은 없다.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英 · 美 "포켓몬Go 덕분에 교회로 젊은이들 몰려와"

이러한 논란은 앞서 포켓몬Go가 서비스되기 시작한 해외에서 한 차례 있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난 여름 포켓몬 사냥을 위한 아이템 제공 장소인 '포켓스탑,' 다른 플레이어와 포켓몬 대결을 벌이는 장소인 '체육관'이 주로 교회 건물에 표시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로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됐었다.

젊은이들이 줄고 있던 영미권 교회 목회자들은 당시 "젊은이들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 체육관에서 다른 이용자와 대결하기 위해 교회 문턱에 나타나고 있다"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대량 전도의 중요한 기회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영국 성공회도 "이 게임은 교회에 쉽게 나오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매우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각 교회는 '환영한다'는 간판을 문에 매달 수 있다"고 권고했다. 성공회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마실 것과 다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이 게임은 또한 많은 건전지를 소모시키므로, 건전지 충전소를 만들고 와이파이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 게임하는 법을 배워, 게이머들과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라"며 "이는 그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했다.

반론도 있다. 미국에서 웹사이트 트루니스(Trueness)를 운영 중인 릭 와일즈 목사는 "이 포켓몬 동물은 가상의 사이버 악마들과 같다"며 "이것이 마성적인 힘을 이끄는 어떤 자석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와일즈 목사는 "이러한 기술이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에게 전달돼,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여주는 앱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적(사탄)은 가상의 디지털화된 사이버 악마들과 함께 교회를 겨냥하고 있고, 그들은 당신의 교회 안에서 악마를 낳고 있으며, 마성적인 활동으로 당신의 교회를 겨냥하고 있다"며 "이 기술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적들이 크리스천들을 겨냥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처형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대웅 기자

총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

제28회 총회서 만장일치 박수로… "우리부터 개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회 총회가 31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여의도 총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만장일치 박수로 연임하게 됐다.

최성규 목사(한기총 증경회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는 총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2005년에는 NCCK 회장을, 3년 뒤인 2008년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원 교단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일을 잘 마쳤다"며 "한경직·조용기·정진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기총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어려운 중에 대표회장을 맡으셔서 잘 이끌어 주셨다"고 말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개회에 앞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 한기총부터 새롭게 개혁되고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야겠다"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을 강력하게 대처해 막아내며, 물 밀듯 밀려오면서 한국 전통문화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이슬람과 동성애 등 모든 사조를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한국 기독교가 한 마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회적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며 "한기총이 원래 세워졌던 목적 그대로 개혁정신의 입장을 굳건히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며,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이단들을 뿌리뽑으며, 잘못된 사회 풍조를 막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영훈 목사

그는 "그런 의미에서 28년째 한기총 창립 이후 함께하면서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주신 모든 교단 임원 회원 여러분들과 단체 임원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총대 333명 중 207명이 참석해 시작됐다. 총회는 곧바로 대표회장 선출에 돌입했다. "단독 후보이므로 박수로 추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잠시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거수투표 결과 추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기립박수로 이 대표회장이 추대됐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당선 후 "박수 추대에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깊이 담아,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한기총 발전을 위해 일하면서 소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남은 안건은 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총회는 폐회했다.

이대웅 기자

이재훈 목사, 한국로잔중앙위 의장 추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최근 열린 한국로잔중앙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추대됐다.

국제로잔운동은 1974년 전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탄생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한 198개국 4,200여명의 교회 지도자가 참여했다.

이후 한국로잔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로잔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훈 목사

수단 선교사 '첩자' 혐의로 종신형

의료 사역 해 온 체코 출신… 최소 20년 투옥

아프리카 수단에서 체코 출신의 선교사가 '첩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수단에서 의료 사역을 해 온 50대 중반의 피터 야섹(Petr Jašek)이 29일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왔다. 이는 수단 법에 따르면 최소 20년간 투옥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 야섹은 2013년 다르푸르에서 시위 중 심각한 화상을 입은 한 학생을 도와준 일이 발단이 되어 첩자로 몰렸다. 2015년 한 국제컨퍼런스에서 화상 피해 학생의 어려움이 알려졌고, 그해 12월 피터가 학생에게 의료비 5천 달러를 건네주기 위해 하르툼에 갔다가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보안요원들은 피터의 가방 속에서 기부 영수증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고발하고 그를 구금했다. 피터 야섹과 함께 기소당한 두 명의 목회자도 수단 남부 코르도판과 다르푸르에서 반군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

하르툼 법원은 피터의 노트북에서 한 외국인이 누바 산맥에서 온 민간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된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수단 검찰은 이 비디오가 '피터와 두 명의 목회자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수단에 적대적인 무리들에 대한 집단 학살 정보를 얻고, 수단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반역죄를 범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피터 야섹이 군사 시설 사진을 찍고 수단에 무비자로 들어갔다고 기소했으며, 허가 없이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한 죄목으로 10만 수단 파운드(1,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 3명의 피고인이 '정부 권위를 약화시키는 소문 퍼뜨리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며, 유럽연합의회도 수감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체코 외무부는 판결을 반박하며 개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야섹은 10년간 병원 관리자로 일하는 등 20년간 의료 분야에 종사했으며, 보코하람에 공격당한 기독교인을 비롯하여 수단과 나이지리아의 핍박 받는 기독교인들을 치료하고 섬기는 사역을 해왔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회장 폴리 현숙 박사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며 "선교사들이 첩자 활동을 했다고 몰아서 형을 선고한 것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수단 정부의 적대감이 커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선고의 가혹함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야섹 선교사가 수단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www.releaseinternational.org

또 그는 "수단 정부는 이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순교자의 소리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수단에 요청하며, 범죄라고는 오직 긍휼을 베푼 것밖에 없는 사람들의 석방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르툼의 대부분 교회는 현재 철거될 위협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르툼의 다른 소송에서 판사는 4개 교회에 대한 철거 명령은 교회가 선정한 변호사가 아닌 수단 당국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21개 교회도 철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피터와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세 명의 남자를 변호하는 법률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항소가 신속히 표명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또 △철거 명령을 받은 수단의 25개 교회가 사역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대상국 가운데 하나다.

순교자의 소리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공산정권 아래서 13년 이상 수감생활을 한 루마니아의 리처드 웜브란트 목사가 1967년 설립한 국제선교단체다. 오늘날 20여 개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순교자의 소리 단체는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핍박 받는 기독교인과 협력하며 웜브란트 목사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2003년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박사가 설립했다.

이지희 기자

서울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 청빙

예장 합동 충현교회가 제6대 담임목사로 미국 뉴저지초대교회 한규삼 목사를 청빙했다. 충현교회는 지난달 22일 공동의회를 열어 1,840명의 성도 중 84.7%의 찬성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충현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뉴저지초대교회 측에 알렸으며 현재 한규삼 목사의 수락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한규삼 목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과 하버드대학교를 거쳐 토론토대학교 낙스칼리지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세계로교회(1999~2009.6)에서 목회한 경험도 있다.

김진영 기자

한규삼 목사

총장 사퇴 없이 총신대 정상화 불가능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일부 교수들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지난달 31일 성명을 발표했다.

총신대 교수 20명은 이 성명에서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작금의 발생되고 있는 학교 행정의 비정상적 운영과 2년 이상 계속된 재단이사회의 파행의 원인이 전적으로 김영우 총장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김영우 총장은 정당한 이 요구를 거듭 묵살해 오면서 파행적 학교 운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 교수들은 김영우 총장의 사퇴가 없는 한 학교와 재단이사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재차 김영우 총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김영우 총장은 총장이 총회의 부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총장의 신분을 유지한 채 부총회장 후보에 지원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재단이사가 총장을 겸직한다거나 총장이 부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목사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불문율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상기한 금지조항이 규정에 없는 것인데, 김영우 총장은 이 전통적 불문율을 철저하게 무시해 버림으로써 학교와 총회 질서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부 재단이사들은 총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긴급처리권으로 재단이사회를 두 차례나 소집하였으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정치적 이익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자 번번이 재단이사회 소집을 악의적으로 불발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김영우 총장을 맹목적으로 비호하며 무능하게 학교 행정을 담당해 온 현 보직교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핵심적인 보직교수들은 현 상황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92405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 KPCA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애틀랜타교협 사업총회가 26일 개최됐다.

멤버십 강화 및 장학 기금 조성

애틀랜타교협 사업총회 열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송상철 목사) 2017년도 사업총회가 지난 26일(목) 오전 11시 지구촌교회(담임 권석균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송상철 신임회장은 "부족하지만 임기 동안 5가지를 힘쓰고자 한다. 우선 멤버십을 강화해 교협 회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모임을 상설해 각자의 노하우를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힘쓸 것이다. 더불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는 집회를 열어 차세대를 키워내고자 한다. 이단을 막아 바른 신앙을 수호해 내며, 협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또한 "복음화 대회는 기존 행사의 단점을 보완해 뜻깊은 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다. 대회 강사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내정했으며 함께 올 수 있는 사역자들도 물색하고 있다. 복음화 대회에 모든 회원 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업총회에서는 신년 사업계획으로 기존의 행사 외에 장학금 지급, 청년대회 등이 추가됐다.

임원 및 각 분과위원장 선임 보고에서는 회장에 송상철 목사, 부회장에 김성구 목사, 총무에 권석균 목사, 부총무 박정근 목사, 서기 백성봉 목사, 부서기 유에녹 목사, 회계 이순희 장로가 보고됐다.

윤수영 기자

왼쪽부터 진점인 장로(회계), 정민규 장로(장로 부회장), 이돈하 목사(회장), 이은균 목사(서기), 김종언 목사(목사 부회장), 백동인 목사(총무)

오레곤 · 밴쿠버한인교회연합회 "복음으로 세상 섬기는 교회 연합"

오레곤·밴쿠버한인교회연합회(회장 이돈하 목사·오레곤벧엘장로교회) 임시총회가 1월 23일 (월) 저녁 7시 포트랜드 영락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교회연합회는 금년 목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정했다. 세상과 단절된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연합이 되고자 한다. 26개 회원교회 대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는 김종언 부회장의 인도로 정민규 장로 부회장의 기도 뒤에 이돈하 회장의 "순수한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본문: 로마서 1:16-17)가 있었다. 이어진 2부 임시 총회는 회장 이돈하 의장의 사회로 신임원 인준,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통과 시키고 지역과 교회들을 위하여 통성기도를 한 뒤 폐회했다.

전 회장이었던 강승수 목사에게 이돈하 목사가 기념패를 전달했다. 오레곤·밴쿠버교회연합회는 새해 감사부흥성회, 삼일절, 광복절 행사, 연합선교대회, 청소년 및 청년 부흥회 및 콘서트, 그리고 연말에 성탄 찬양제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행위원으로는 예배 음악분과의 강재원 목사(온누리성결)와 정정희 권사, 신학·교육분과의 남궁진 목사(시온)와 오정방 장로, 청소년 분과의 지선묵 목사(밴쿠버한인), 선교·전도분과의 원정훈 목사(에덴)와 호광우 장로(영락), 지역사회 분과의 김병직 장로(갈보리), 감사의 강승수 목사(열방)와 고택수 장로(벧엘)가 교회연합회를 섬긴다.

브라이언 김 기자

나눔으로 시작한 뉴저지교협 신년하례

'성경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시작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국 목사)가 22일 오후 5시 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2017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열었다. 올해 뉴저지교협은 뉴저지 내의 연합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뉴저지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 4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금을 전하는 등 나눔으로 한 해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윤명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의 사회로 육민호 목사, 이준규 목사, 송호민 목사, 원도연 목사 경배와 찬양, 김진수 장로(부회장) 기도, 원도연 목사(기록서기) 성경봉독,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지휘 김종윤 목사) 특송, 한재홍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말씀, 이정환 목사(협동총무) 특별기도, 송호민 목사(기록회계) 특별기도, 뉴저지권사합창단(단장 한정례 권사) 봉헌송, 강영안 장로(회계) 헌금기도, 장동신 목사(총무) 광고, 이의철 목사(직전 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하례식은 장동신 목사(총무)의 인도로 조이풀 크리스천 어린이합창단(단장 박성균) 축하찬송 및 세배, 김성욱 테너 국가 제창, 민경수 목사(감사) 기도, 김종국 목사(회장) 신년사, 박은림 뉴저지한인회장 축사, 김영천 목사(필라델피아교협 회장) 축사, 김상태 목사(뉴욕목사회장) 축사, 뉴저지사모합창단(단장 이미리) 축가, 유재도 목사(뉴저지목사회장) 장학금 수여, 김종국 목사 후원금 전달, 뉴저지장로부부성가단(단장 이종해 장로) 축가, 김귀안 목사(한소망교회) 폐회기도, 윤석래 장로(감사) 만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저지교협 회장 김종국 목사는 "올 한 해 뉴저지의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힘쓰자"고 독려했다.

교회 내에 쌓아놓은 수류탄의 모습. ⓒAid to the Church in Need

IS 위험 불구 귀향길 오르는 이라크 기독교인들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라크 니네베 평야의 가장 큰 기독교 마을인 카라코시는 IS의 점령 이후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지금은 다시 이라크 정부의 통제 아래 복구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라크 정부에 보다 강력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2년 전 고향을 떠났던 가톨릭사제인 샤르빌 에소(72) 신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에소 신부는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안전이 보장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이라크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동 밖에 있는 동료 기독교인들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곳에 전기와 물이 다시 공급됐다는 소식을 듣고 카라코시로 돌아오고 싶었다. 그러나 귀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마날 사티는 가톨릭 자선 단체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 ACN)와의 인터뷰에서 IS가 어떻게 인근에 있는 성모마리아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상을 훼손했는지 설명하며 "지하디스트들은 교회를 표적으로 삼았고, 교회는 총격으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ACN은 "카라코시의 성조지 성당이 1백여 개의 폭탄과 수류탄으로 가득한 IS의 폭탄 공장으로 이용됐다"고 전했다. IS 대원들은 성당 벽에 전쟁 전략 등을 기록했으며, 폭탄 제조법이 적혀 있는 화학 물질도 교회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中 공안, 현지 한인 선교사 32명 체포

지난달 20일 저녁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중국 공안이 한국 선교사 32명을 붙잡았다고 MBC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선교사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집 30여 곳을 급습해, 이들을 한꺼번에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예장 소속 선교사들로 탈북 주민이 인신매매에 당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는 일을 주로 해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창춘과 심양 등에서 활동해 온 다른 선교사들도 일시 귀국하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교 활동이나 탈북 주민을 보호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MBC는 "중국 당국이 이번처럼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인 것은 이례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압박 차원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목회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는 저커버그(카메라를 향해 등을 보이고 있는 인물). ⓒ저커버그 페이스북

페이스북 창립자 저커버그 "난 더 이상 무신론자 아니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32)가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텍사스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 그들의 사역을 배우고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저커버그는 "와코에 있는 사역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교인들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더 커다란 존재 안에서 (삶의) 목적과 진정성을 발견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와코 출신의 성공회 사제인 아론 짐머만 목사는 뱁티스트 프레스(Baptist Press)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18일 저커버그와 만남이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가 강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하고 듣기 위해 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전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대략 90% 가까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저커버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앞서 "작년 12월 저커버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신론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성탄 및 새해 인사를 전했는데 한 독자가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닌가? 왜 이같은 인사를 하느냐?"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저커버그는 "난 무신론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한 뒤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 의문점을 가지고 지낸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무신론자로 소개했으나 이후에는 종교적인 언급을 삭제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 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섭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8일 $2,600 ▶4/24 (항공포함)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그 – 프라이부르그–루째른 –취리하–로텐부르크 프라하 – 드레스덴 – 비텐베르크– 라이프치히 – 아이제나흐 – 프랑크푸르트

① 황태자의 첫사랑 하이델베르그 & 칼뱅 종교개혁지 순례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띠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③ 호반의 도시 스위스 루체른 & 츠빙글리 취리히
④ 보헤미안 천년성 체코 프라하와 얀후스 개혁지
⑤ 종교개혁 메카 루터 비텐베르크 & 라이프치히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5일 $999 ▶4/17 (항공포함)

▶시카고 – 인디애나 폴리스 – 신시내티 – 인디애나폴리스 – 신시내티

① 시카고 시티 투어 – 밀레니엄 공원 / 시청
② 인디애나 폴리스 주 의사당 외부관람
③ 창조박물관 – 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록물을 보관
④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ARK투어 – 실물크기의 노아방주 모형
⑤ 신시내티 내셔널 언더 그라운드 레일로드 프리덤 센터
⑥ 링컨생가 및 뮤지엄 –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의 생가, 뮤지엄
⑦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세계최장 동굴) – 켄터키 주에 있는 메머드 동굴

새로운 여행 문화를 창조하는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퀘벡 최고급 샤토 프롱트낙 호텔 숙박
퀘벡 윈터 카니발 4박 5일 ▶2/8 $899 (항공포함)
캐나다 동부 4박 5일 ▶금 $1,299 (항공포함)

일본 노팁! 노옵션! 항공포함!
북해도 6박7일 ▶특별출발 2/15 $3,199
– 삿포로 특식 3대게 무한 리필 특선!
– 호수마을 도야에서 온천욕
– 동경오다이바, 신주쿠 거리

알래스카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
오로라 기차 여행 4박5일 ▶출발 : 목요일 $1,300 +항공
– 호텔에서 편안하게 오로라 관찰
– 페어뱅스 역사 박물관, 산타마을 등
– 지구 최북단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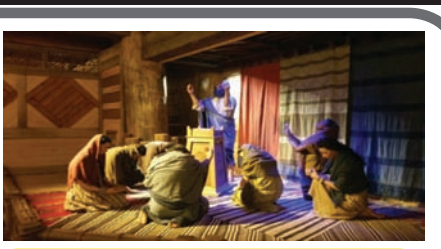
한국 유일한 안보관광 투어
2017 재향군인가족 안보 산업 시찰단 5박6일 ▶4/10 $740 +항공
포항 – 울산 – 경주 – 평창 – 고성 서울 – 평택 – 서울 – 철원 등

–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님께 특별 할인 해 드립니다. – 푸른투어를 방문하시는 모든분께 스파팔래스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기존 세도나일정과 완전 차별화된 코스
세도나 기차 /미티어 크레이터 4일 $399 ▶2/13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자연석조 다리를 만나보세요
레인보우 브릿지 /모뉴멘트 벨리 4일 $399 ▶2/20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 /스위스,독일,체코,프랑스 (항공포함) 8일 $2,600 ▶4/24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항공포함) 5일 $999 ▶4/17

미 서부, 동부, 캐나다, 한국 모든 여행을 푸른투어 5개 지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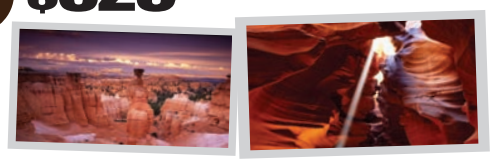
미서부

다른회사와 차별화된 미서부 관광
❶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❷ 디럭스 리무진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토
4대 캐년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화/토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3일 $299
▶매주 월/목/금/토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화/토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푸른LA 일일투어 ▶수/금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99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할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써클
6박7일 $829 ▶3/24, 4/8, 4/28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 아치스 캐년 / 앤텔로프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캐피틀 리프 / 캐년 랜즈 / 글렌 캐년

"특급 몬테카를로" 미서부 4대 캐년
3박4일 $389 ▶매주 화 출발
자이언 /브라이스 / 앤텔로프 / 그랜드 캐년

미동부

"가주교육신문과 함께하는 봄방학 특선"
명품 IVY 리그 5박6일 $1,399
– 예일대학에서 정태현 박사과정 특강 1시간 ▶3/28 4/4

5박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399
7박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499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3명 이상 출발

❶ 푸른 유일 $100상당의 3대 옵션 포함 – 타사 비교 요망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시닉터널
❷ 서부 여행사 유일하게 타사위탁이 아닌 푸른이 직접 행사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 6일 (미동부 5일+토론토)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8일 (미동부 6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 6일+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0)

"다섯 덩어리 떡과 두 마리 물고기" 예수님 기적의 교회

▲ 교회 제단 밑에는 다섯 덩어리 떡과 두 마리 물고기를 상징하는 타일이 장식되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떡은 네 덩어리뿐이다.
◀ 오병이어 교회의 내부 모습
▼ 오병이어 교회의 외부 모습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해서 오병이어 교회(Church of Fish & Loaves)로 알려진 Church of Heptapegon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갈릴리의 중심도시 티베리야에서 서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진행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신약 시대에 게넷사렛(마14:34)이라 불렀다)을 지나 9마일을 차로 약 17분 정도를 진행하면 바다가 끝날 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타브하'라는 지역이 나오고 이곳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는 서쪽으로 2마일 떨어져 있다.

◈오병이어 교회의 역사

타브하는 7개의 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자연적 샘물이 있었던 것 같다. 오늘날에는 6개의 샘물이 이곳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이유로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어부들이 이곳에서 고기잡이에 많이 종사하였던 것 같다.

오래된 항구의 모습이 발견되는 이곳은 해저 211.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60m, 40m, 30m짜리 샘의 줄기가 동쪽에서 이곳으로부터 오고 있다. 천연의 항구가 되었던 이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가 최초로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다.

AD25-350년 어간에는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도 성장해 드디어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던 때이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와 행적을 따라 곳곳에 기념교회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AD350년에 7개의 샘이라 부르는 타브하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기리기 위해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졌다. 이름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 바구니가 남았다고 해서 "The Church of Multiplication"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다. 이 교회에 가보면 바닥 모자이크에 음식이 증가하는 모습의 모자이크를 기초석 옆 오른쪽 유리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AD480년에 크게 개축한 교회는 AD614년에 페르시아의 침공에 의해 파괴되고 이후에 637년 이슬람의 세력에 의해 이스라엘이 온전히 점령당하고 통치되던 시기에 완전 파괴되었으며 1932년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폐허가 발견되기까지 무려 1,300여년이 걸렸다. 1980년에 새롭게 건축하여 1982년에 완공한 현재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건설하였는데. 교회 크기는 가로 33m, 세로 56m로 지어졌다. 교회당 안의 크기는 가로 19m, 세로 25m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서 계셨던 바위가 중심이 되어 교회가 건립된 것이다. 초대교회 이후 순례자들은 성지의 여러 성물들을 신성시하여 예수님이 서 계셨던 바위도 조금씩 떼어갔다. 아마 병 치료나 건강 혹은 부적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예수님의 행적

세례요한이 사해 동편 말케루스 요새에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 베임을 당한 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 채 배를 타고 떠나 조용히 빈들로 가셨다. 주님은 요한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서 주님보다 6개월 먼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평생 청빈한 삶을 살다 간 요한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묵상에 잠겨있던 주님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빈들에 있다 하니, 소리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쫓아 왔다. 주님은 요한의 생애를 바라보며 참 생명의 의미에 대해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을 것이다. 주님은 병도 고쳐 주시고 영적인 병도 고쳐 주기 원하셨다.

저녁이 되어가자 제자들은 은근슬쩍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저녁 식사 문제를 내어놓는다. 제자들은 무리들을 주님이 돌려보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를 돌려보낼 생각은 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다.

드디어 오병이어가 등장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는 대로 떡은 계속 나누어진다. 다 배불리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고 남은 떡은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다.(마14:13-21)

◈그날 저녁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

그날 저녁 기적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는 없다. 또한 한 끼 먹지 못하였다고 죽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님이 굳이 이 기적을 일으킨 까닭은 무엇일까?

그날 이 기적에 참여한 이 중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요, 어떤 이는 그저 한 끼 식사를 채우고 만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는 생명의 떡이 바로 주님이심을 상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빈부와 귀천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군중들은 대다수가 서민들이었다. 그들은 신기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과 호기심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지만 살아있으니 끼니때가 되면 먹어야 했다.

그들이 갖고 다니는 식량은 보리빵이었다. 물론 부자는 그 당시에도 밀 빵을 먹었다. (당시에 밀 가격은 보리 가격의 두 배였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잡히는 정어리가 그들의 주식이었던 것이다.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은 다른 이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가난한 이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마음껏 먹게 하고 열두 바구니나 남게 만드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모습은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준다.

◈오늘날 오병이어 교회의 모습

오늘날 이 교회는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1982년에 재건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름답게 서 있다. 이 교회 제단 중앙부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하는 바위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모자이크가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5병 2어가 아니라 4병 2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떡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순례객들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농담 삼아 이런 말들을 한다. "이제 우리가 기적의 장소에 왔으니 아무 걱정이 없다"고 말이다. 기독교는 분명 기적의 종교다. 하지만 기적이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새 생명이다.

이 교회에서는 물리적 증가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짧은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한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순례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15일~24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15일~12월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국의 맛
우리반찬
KOREAN FOOD
THE BEAUTY OF KOREAN FOOD
최고의 기회 NO MSG
웰빙푸드 전문점
선별된 좋은재료, 최고요리 전문가의 정성어린 손길로 모십니다.
품격있는 캐더링
웨딩 캐더링
교회 행사 캐더링
돌잔치 캐더링
회갑잔치 캐더링
생일상 캐더링
■ 스페셜 다이어트 푸드
■ 자연의 맛 그대로 조리된 각종 반찬
■ 전통 찜요리 (궁중찜, 갈비찜, 코다리찜, 조기찜, 묵은지 등갈비찜)
■ 웰빙 김밥
■ 김치류
연말 연시 캐더링 주문 환영
Tel(213)388-0022
356 S. Western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찾아오시는 길 Western Ave 4Th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 (VI)

김 인 수 목사
미주장신대 전 총장

초기 한국교회 사회개혁 활동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제사폐지 문제였다. 조상 제사문제는 로마 가톨릭 편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오는 전통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피 흘리고 순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개신교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의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계도해 나갔다. 교회는 이것의 철폐를 위해 힘썼는데, 이는 효도하는 일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우상숭배적 요인을 제거하고 이의 폐해를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스도 신문」은 그 폐해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제사하는 일이 헛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허다한 폐단이 불소하니 시간을 허비하므로 일에 방해될 뿐 아니라 힘을 낭비하며 재력을 모손하고… 또 자손이 업는 사람들은 곧 첩을 얻나니 이는 더욱이 그릇하는 일이라 집을 망하는 화근인 줄을 아지 못하는도다…… 만일 허비하는 재물로 나라 일을 위하야 행할 지경이면 그 전진할 일이 한량이 업을 거시여늘 이에 사람을 교육하는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마음을 우상 섬기는 대 전력하는 거시 엇지 그릇함이 아니리오 또한 허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조상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영화를 그 조상에게 돌리는 거시 또한 참람한 죄가 아니뇨."

따라서 조상제사는 유교가 중시한 효도 문제와 분리해서, 우상숭배 문제로 접근했던 것이다. 제사 금지의 이유는 위 글에서 보 듯, 먼저 시간 낭비, 일부다처제 조장, 재물 손해, 우상숭배라는 여러 이유로 금지했다. 이 문제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됐고,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거침돌이 됐으나 교회는 단호히 이 문제에 대처했다. 이런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교회는 또한 조상 제사의 폐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음담패설하는 습성도 지적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곳칠 일은 음담패설이니 상하 등 물론하고 사람 모힌 곳에 항상 더럽고 음란한 말이 란만하야 서로 붓그러운줄도 모르고 쳬모도 도라보지 아니하며 소위 맹셰한다는 욕설을 드르면 입에 담을 수 업고 귀에 듯기 병될 말이라…… 하등인의 저의끼리 수작할 때에 말이 한마대면 욕설이 두세 번식 드러가는 때가 만코…… 길에 혹 녀인이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웃는 거시 례사로 알아 쳔한 계집은 그리하여도 관계치 안타 하야 경찰관리가 보아도 금하지 아니하니 례의 디방이라 자칭하는 나라에서 엇지 외국인을 대하기에 수치되지 아니하리오. 풍속이 차차 변하면 사람의 톄통이 자연 졈잖아지고 나라 디톄가 따라 놉하질이로다."

기독교인이 되면 믿기 전의 이런 폐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강조했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된 폐습으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중요 사안들이었다. 이런 폐습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는 꾸준히 이러한 일들에 진력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으로는 한글 전용을 들 수 있다. 한국 초기 교회가 이루어 놓은 일 가운데 한글을 전용한 일만큼 다대한 공헌을 한 것도 드물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해 여러 명저를 저술한 스나이더(L. L. Snyder)는 언어와 민족의 동일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한 민족이 쓰는 단어나, 문장, 단어의 형성, 그리고 언어의 리듬은 한 민족의 지적(知的), 감정적 질을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언어를 통하여 한 민족의 축적된 역사적 전통과 기억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는 문화의 일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한글 전용은 이와 같이 한국 민족 문화의 동일성과 일치성의 유지란 측면에서 그 공헌이 다대하다. 1893년 서울 주재 장로교 선교사들은 문서 선교의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첫째로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과, 둘째로 모든 문서는 '순수한 한글(pure Korean)'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언어학자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글자(second best alphabet in the world)' 혹은 '세계 엇던 나라 글자 보담도 제 1 배호기 쉬운 글'로 한글을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세종대왕이 1443년(세종 25년)에 창제하여 널리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 쓰게 했던 것을 오랫동안 천시하고 방치해 왔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녀자들도 쉽게 배우고 읽을 수 있는 한글을 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했던 것이다. 조선 백성들이 마땅히 한글을 전용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 신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 선비가 높은 학문이 있으면 스스로 교만하야 자긔만 못한 사람을 능멸하고 압제하며 조곰이라도 교육하야 나와 갓한 삶 되기를 원치 아니하며 무슨 긔묘한 방문이 있으면 남이 알가 두려워하야 혹 친자제라도 가라치지 아니하고 죽은 이가 잇다 하기는 하나, 이는 다름 아니라 샹주의 진리를 알지 못한 까닭이니라. 또 대한 션배들이 언문을 슝샹치 아니하고 증국 문자만 슝샹하니 이는 제 가정을 알지 못하면서 남을 아노라 함이니 국외(局外) 사람이 보건대 엇지 밝은 사람이라 하리오. 이 회사(셩셔공회)에서는 언문 셔책을 출판하기로 무식한 사람들도 언문법을 차차 아는 이가 더러 잇고 목슈 초동과 부인 유아들이 차차 이 나라 글을 알게 되어 4백 년 동안 감초엿던 언문이 지금이야 행새하니 더욱 감사하노라."

이처럼 선교사들이 한글 전용을 추진한 결과 시골의 아낙네들도 쉽게 한글을 깨우쳐 성경을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됨으로써 전도와 민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제이슨 송 칼럼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 (2)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계속 시리즈로 성공과 실패,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공과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인생과 학업, 그리고 관계 속의 실패를 어떻게 잘 다뤄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란 표현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를 즐기거나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실패란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실패를 피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시작도 하기 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또 과거의 실패를 너무 중대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에 실패한 것을 마치 인생 전체의 실패같이 여겨선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낙오자다.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패란 그저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 수업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실패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한 사건, 일정한 기간이나 이벤트에 국한된, 인생의 작은 부분입니다. 몇 번 실수했다고 내가 낙오자다, 난 항상 실패한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특히,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우리 청소년들은 실패를 미워하기보다, 인정하고 배우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남의 눈에 "아, 저 사람, 실패한 그 사람"의 낙인이 찍히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특히 남의 시선에 예민합니다. 그러나, 남의 생각이나 시선 위주로 인생을 살아선 안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 또 인내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청소년은 실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만회할 기회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포기해선 안됩니다.

자, 그럼,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실패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한 것 같이, 성공에 대한 올바른 정의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돈을 잘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직위에 오르면 성공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정의이지,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성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공은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어디에서 왔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낙오자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어리고 미숙하기에 이런 생각을 안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서부터 인생의 목적을 깨닫도록 부모나 교사, 멘토가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 잠재력에 도달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임무와 책임, 다시 말하면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 지으시고 부르셨는지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케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임무이자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분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익숙치 못합니다. 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통해 섬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인생의 법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과제가 있다, 실수나 실패란 없다·오직 배워야 할 과제가 존재할 뿐이다, 과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수업·레슨은 반복된다, 쉬운 수업을 통해 레슨을 배우지 못하면, 레슨은 점차 어려워진다, 우주의 법칙 중 하나가 고통과 아픔을 통해 집중을 끌어내는 것이다.

맞습니다. 살아가며 실패를 피할 수 없고, 성공만 거듭하며 살 수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실패나 실수에 너무 묶여 살아선 안 되겠습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추천 도서

요나 묵상 31일
오지영 | 홍성사 | 400쪽

〈룻기 묵상 28일〉에 이은 저자의 두 번째 묵상집이다. 선택하지 않은 인생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었던 한 사람, 선지자 요나의 여정을 통해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 진리가 우리 안에 확고해지고 날로 깊어질 것"을 기대하는 책이다. 히브리 원어를 적절히 설명하면서 요나서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다.

하루 동행
하정완 | 규장 | 232쪽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진 꿈이자 비전이다. '영화 설교'로 잘 알려진 저자는 "하루를 동행하면, 평생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책은 독특하게도, 그 하루를 위한 15일간의 '멈춤 훈련(1부)', '10일 동안의 준비(2부)' 후 3부 'D데이'에서 하루종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3부는 시간대별로 일정이 있는 '다이어리' 형식이다.

주니어 묵상집
프랜시스 하버갈 | 죠이북스 | 224쪽

어린이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 31일간 묵상할 수 있도록 짧은 성구와 함께 총 62편의 글이 그림과 함께 실려 있다. 저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말씀과 주요 교리들을 풀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남기고 있다. 책을 쓴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1836-1879) 여사는 '나의 생명 드리니', '내 너를 위하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등의 가사를 쓴 뛰어난 작사가이기도 하다.

나우웬과 함께하는 아침
헨리 나우웬 | IVP | 128쪽

지체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았던 영성 작가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 1932-1996)이 생전에 썼던 30여 권의 저서 중 가장 빼어난 112편을 발췌해 묶은 묵상집이다. 작가이면서 Doubleday 출판사에서 종교 담당 편집자로 일했던 에벌린 벤스(Evelyn Bence)가 편집을 맡았다. 헨리 나우웬 특유의 따뜻하고 솔직한 글이 읽는 이들을 위로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교만에 대한 가르침은 강단에서 왜 사라지고 있나

기독교는 교만을 매우 싫어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만함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강단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교만한 사람은 몇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교만하게 보이는 순간 공격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교만함이 사라졌을까? 아니다. 교만함은 지금 '자기 중심성'이라는 가면을 바꿔 쓰고 다닌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 한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다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짐으로써, '자기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신앙관이 이와 뒤엉켜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종교적 삶과 세상 안에서의 삶이 일관성을 잃은 채 분열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들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정신적으로도 분열된 정신적 분열을 겪고 있다면 과장일까?

토마스 맨튼이 쓴 〈자기부정〉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느꼈던 혼란스러운 부분 두 가지를 먼저 말하자면, 먼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이다.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듯 하다가 자유의지를 전면 부인하는 듯 하니,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다. 이런 부분은 신학의 발전과정을 보는 듯한 스릴을 느끼게 해 준다.

토마스 맨튼 | 박홍규 역
믿음과행함 | 388쪽

둘째, '옛 자아'와 '새 자아'에 대한 구별이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자아를 부정할 때 하나님이 자아를 부정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자아로 인해 옛 자아를 부정하는 '새 자아'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본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

본서는 우리 개신교의 뿌리인 청교도의 중요한 신앙 유산이다. 이들의 믿음과 눈물, 땀방울을 먹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공통되게 느껴지는 것은 진리에 '신실함', '진지함'이다.

이들 또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신앙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글에서 '권위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만, 아마 짐작컨대,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였을 것이라 상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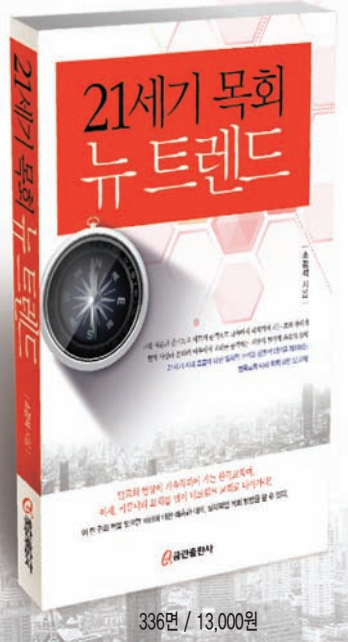
본서가 말하는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과 여정들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자기 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해져야 할 실제 행위들이다.

필자가 본서를 읽으면서 강하게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실제적 문제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실제적 문제들'에 대한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인 고민과 묵상들이었다. 진지한 자기 부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본서를 추천한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프쉬케치유상담연구원장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336면 / 13,000원

소강석 지음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을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함께 시작하세요!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꾸란의 '이사' 에서 성경의 '구주 예수님' 을 만나기까지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전도의 동력 얻을 수 있는 책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서방 교회는 동성애 법제화(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슬람의 확장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의 확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시아에서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다. 대한민국도 꾸준히 무슬림이 유입되고 있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은 인문학적 관심과 함께 믿음의 관점(종교적)으로도 보아야 한다.

기독교 출판계에서 이슬람은 복음 전도, 개종을 목표로 출판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전도 대상자로 보는 방식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전도자가 단순하게 영적 능력 강화로 복음을 전도하겠다는 발상은 무슬림 지역이나 타문화권 지역에서도 지양해야 할 자세이다. 나빌 쿠레쉬(Nabeel Qureshi)의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는 무슬림 이해와 무슬림 전도에 대해, 무슬림에서 개종한 당사자의 수기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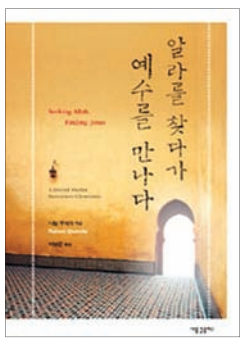
나빌의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는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례이다. 나빌은 아시아계(파키스탄)로 미국에서 거주한 무슬림이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 마크 가브리엘처럼 이집트에서 유력한 학자에서 우연하게 개종한 사례도 있다. 나빌의 개종 사례는 매우 독특하고 감동적이다.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모두 큰 신비이다. 무슬림이 개종하는 역사를 볼 때, 한국 사람도 전도할 수 있겠다는 도전을 받는다. 무슬림을 이해하고 전도하려는 의도와 함께, 한국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동력까지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나빌의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를 보면, 이슬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그 외 분파 이슬람에 대한 것이 그것으로, 나빌은 그 중에서 소수파 무슬림이지만 매우 정통적인 가계(쿠레쉬 가문)라고 했다.

나빌은 스코틀랜드와 미국에서 거주했지만, 전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패턴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이 그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으로 토론하면서, 꾸란에서 왜곡한 '이사'에 대해 기독교적 예수로 인식하며 믿게 되었다. 나빌이 제시한 이슬람 전반의 모습도 매우 실제적이고 확고했다. 그런 나빌이 '이사'에서 '예수'를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이다. 자신의 강력한 무슬림 생활양식과 지식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이슬람의 거짓체계를 인식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나빌 쿠레쉬 | 박명준 역
새물결플러스 | 564쪽

그리스도인이 열린 마음으로 학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다. 학문 훈련과 인격 훈련은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무슬림과 대화하며, 기다리면서 변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전도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맹신으로 공격적 전도를 하는 방식도 아니다.

나빌을 만났던 토론팀은 성경공부를 열린 마음으로 무한 토론과 공감으로 진행했다. 나빌이 가졌던 이슬람의 맹목적 체계가 천천히 무너졌고, 예수를 '이사'가 아닌 구주로 믿었으며, 결국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던 길에서 복음 전도자의 길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읽는 독자는 매우 신선한 도전을 받는다. 한 무슬림이 개종한 사례를 보면서, 무슬림 전도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중요한 전도 전략의 한 방편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불신자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 운용에 대한 것이다.

나빌의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는 수기(手記)이기 때문에 빨리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매우 정교한 지식 체계로 진행된다. 그래서 정보를 조목 조목 점검하면서 읽으면 이슬람 전반에 대해, 그리고 복음의 진수에 대해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는 전문적인 책과 짝을 이룬 매우 정교한 저술이다. 나빌은 체계적으로 〈알라인가? 예수인가?〉도 저술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는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씩 점검하면서 읽으면 이슬람 전체 체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 그리고 다시 무슬림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알라인가? 예수인가?〉도 기대하게 한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복음 전도를 하는 방식이 아닌, 매우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역사 지식이 필요한 이유까지 알게 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단지 무슬림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서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는 성경공부 토론 모임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 책이 지시하는 〈알라인가? 예수인가?〉를 함께 놓고 꾸준히 독서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무슬림 탐구가 될 것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주님의교회 담임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저자 나빌 쿠레쉬 박사.

[인문 고전 읽기]

이상적 국가는 정치와 윤리의 구별이 없다

플라톤 | 이환 역
돋을새김 | 304쪽

〈국가론〉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B.C. 427-347)의 대표적 저작이다. 이 작품은 그리스 철학 전체로 봐서도 대표적 고전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플라톤은 이 책을 철학 전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폴리스적 인간으로서 자기 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교양을 위해 썼다. 그의 다른 저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대화 형식을 취했다. 그리스의 모든 산문 문학 중에 문체에 있어 이보다 깊은 것은 없다는 극찬을 받기도 한다. 사본의 결손 때문에 이따금 문장의 정확한 뜻이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문체와 사상이 모두 맑은 깊이를 지니고 있다.

플라톤은 40세 때 남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얼마 안 돼 아테네에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아카데미의 설립 연대가 몇 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본서는 아마 그 수 년 후(B.C. 380년경)에 쓰였으리라 생각되고 있다. 아카데미에서 그의 교육의 이상이 본서에 반영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의 대화편에는 예로부터 '일명, 정의에 대해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폴리테이아'란 폴리스, 즉 도시국가의 정체 및 조직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이 대화는 국가를 주제로 한 것이냐, 아니면 부제가 가리키고 있듯 정의를 주제로 한 것이냐에 관해 해석자 간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논쟁은 정치와 윤리 어느 쪽이 〈국가론〉의 기초적인 테마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입장에서 말하면, 정치와 윤리 사이에는 구별이 없었다. 그러므로 정의의 문제와 플라톤이 여기서 그리고자 한 이상국가의 구상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정치와 윤리와의 완전한 일치라도, 그것은 정치가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역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본서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윤리적이며, 플라톤에겐 이상적인 국가란 곧 윤리적 국가와 다름이 없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플라톤이 국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 묻는 것에서 출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전통적으로 10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파피루스의 길이 제약을 받고 나눠진 것이지, 대화의 내용에 의한 것은 아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이 국가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 조직을 통치자 계급과 무인계급 및 농부·목수·상인 등으로 이루어진 서민계급으로 나눈다. 국가의 정의는 분업을 원리로 한다. 그것은 "국가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각자가 자기의 본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고, 나머지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모든 사람, 모든 계급에 소속된 덕이다.

제5권에서 제7권에 걸쳐 플라톤은 이상적 국가구조의 윤곽을 설명한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상적 국가의 참다운 통치자란 '통치자인 동시에 철학자(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소위 '철학자-왕'의 교육에 관해 언급한다. 그는 철학자의 실제 교육 과정이나 그 커리큘럼에 관해서도 논하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론〉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도 유효한 물음이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 피부 회복력 강화 시스템 |
24캐럿 골드와 꿀의 환상 조합!
피부 세포 재생 솔루션
G/O/L/D/E/N/S/K/I/N

에뜨레벨 être belle Made In Germany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느낄 수 있는 24캐럿 골드 트리트먼트

1) 눈가 쿨링 효과와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뛰어난 퍼밍 효과로 건강한 눈매로!
2) 자외선이 강한 오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탄력을 향상!
3) 밤 사이 충분한 피부 휴식과 영양을 채워주어 피부 컨디션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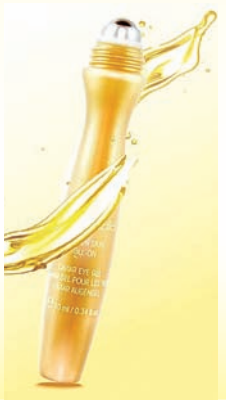
■ 골든 스킨 케어 세트
Golden Skin Care Set
골든 스킨 아이 젤 15ml
골든 스킨 데이 크림 50ml
골든 스킨 나이트 크림 50ml
3종 세트 $256 + tax

Biocüra
바이오큐어는 독일최대규모 코스메틱 막심과 엠에스코의 라인업 확장으로 의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특허기술을 보유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큐어의 제조에 기술제휴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 놀라운 효과를 한알에 담다 |
■ 바이오큐어 트리트먼트 캡슐
TREATMENT CAPSULE
한알의 파워! 블랙캡슐
독일 제약회사의 기술력 바이오큐어
TREATMENT CAPSULE 50ml
$49 + tax

미백효과
탄력개선
주름개선
항산화
안티에이징
혈색개선

|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 캡슐 |
■ 바이오큐어 콘센트레 퓨어세럼
CONCENTRATE PURE SERUM



■ 골든 스킨 아이 롤-온
Golden Skin Eye Roll-on
휴대가 간편한 젤 타입의 아이 롤-온
탄력
피부결
수분공급
눈가 생기
Golden Skin Eye Roll-on 10ml
$34 + tax

■ 선 크림 + 애프터 선 로션
Sun Cream + After Sun Lotion
Sun Cream + After Sun Lotion 75ml+75ml
$44 + tax

선크림과 애프터 선 로션 패지키 상품으로 선블럭을 차단해주며 햇빛으로 인해 자극 받은 피부 진정까지 한번에 가능한 제품.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February 2, 2017 Vol. 87

G2G-KODIA hosted a forum on contextual theology on January 30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ll Theology Is Born Out of Contextual Struggles and Questions'

G2G-KODIA hosts first forum of the year, aiming to provide resources for contextual ministry

BY RACHAEL LEE

"Every theologian is historically particular ... They all struggled with their own particular contexts. These people we consider giants of theology struggled with their own questions."

Such was the case made by Dr. Daniel Lee, director of the Center for Asian American Theology and Ministr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o spoke at a forum on Monday hosted by G2G-KODIA. The organization, which aims to provide contextualized resources for Asian Americans in ministry, has produced Bible study curriculum for Asian American youth, and hosts events like this forum on a monthly basis.

At the forum, which took place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Lee asserted that "all theology is contextual," and addressed the implications of the term "contextual theology" itself. The term, he said, is evidence of the "white normativity" that is deeply ingrained in theology. Every theologian, when asked, "Is your theology contextual?" would answer that it is, Lee said, but not every theologian would explicitly call their work "contextualized" like some Asian Americans or those of other minority ethnic groups might. Even the act of calling something "contextual theology" assumes that some theology is normal, or "white," while others aren't.

"No one should have to justify Asian American theology. If they're Asian Americans doing theology, then they're already doing Asian American theology, or theology from an Asian American perspective," Lee said.

However, he added, ethnic minorities still must use the term because white normativity is currently deeply ingrained in Christianity. "We're in a strange time where we have to label it because if we don't, we have no idea what we're doing because normativity is already so established," Lee explained.

Some Asian Americans may shy away from doing theology or ministry specific to the context of Asian Americans, and Lee admitted that he had also felt this way. He said he felt that doing Asian American ministry would limit him to a "pond," when he had wanted to get out into the "ocean" of theology. But he said he later realized that "every theologian does theology in their own pond."

He noted theologians such as Dietrich Bonhoeffer, Martin Luther, John Calvin, and Karl Barth, whom he called "theological giants," as having been able to produce the theological work that they did because of the specific questions and struggles they had in their specific contexts.

"They all were trying to make sense of the gospel in a particular time and space," Lee said. "That's why every theology covers certain questions, and ignores others. It's because they were interested in those particular questions."

The problem with some of those in minority groups, Lee said, is that they have a tendency to shy away from those specific questions and struggles that arise from their contexts, rather than embracing them and seeking to resolve them.

"Non-white theologians have already absorbed so much of white normativity that they don't think of their questions and struggles as valid or important enough," Lee said. "But theology is born out of pain. Take your struggles and ideas seriously."

It's when these specific struggles are embraced that theology is born, and contribute to a wider and universal understanding of the gospel, said Lee. Though "the universal gospel is always going to be mediated in a particular way," he said, "the particular should always serve the universal."

Lee said that when ministers fail to embrace their struggles, their contribution to that greater understanding is lost.

"We're ashamed to connect with our pain, so we're not contributing theologically," Lee said. "For us to take our pain seriously — that's where contextual theology comes from."

'Historic' Initiative Seeks to Connect API Community to Employment Resources

To help the Asian Pacific Islander (API) community get connected with the employment resources they need,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has partnered with the city of Los Angeles to launch the API JOBS (Job Opportunities and Business Success) Initiative, which was announced on January 26.

"This initiative, in partnership with the City of Los Angeles, will be the first of its kind to serve the Asian Pacific Islander (API) community in providing and connecting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career pathway,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to linguistically isolated participants and their family members," KCCD said in a statement.

"This is historic," said Hyepin Im, the president of KCCD. "But we know that this is just the start of the journey."

Im said that though there are numerou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resources available to the Asian community, many are not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m due to language barriers. The API JOBS Initiative would provide orientations, job readiness workshops, and other programs to help members of the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 Pacific Islander (AANHPI) community in-language.

KCCD will specifically be collaborating with the California Labor Federation Workforce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and Workforce Connections Inc., to carry out the API JOBS Initiative.

Jan Perry, the general manager of the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Department for the City of Los Angeles, said that though there was a "competitive bid" to secure funding from the city, "KCCD was selected because of its many years spent building their vision by providing a wide array of social services, and a very well thought out strategic positioning in reaching out to the community."

Charlie Woo, the chair of the Workforce Development Board in the City of Los Angeles, expressed excitement for the initiative, and recalled his own experiences of seeing members of the API community not getting access to employment resources.

"I'm excited to see how Asian Americans will lead the way in this initiative," he added. "Many underserved people will benefit from this."

Other partnering organizations include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Los Angeles, 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 CAUSE, Asian Pacific Policy & Planning Council, the Los Angeles Community College District Board, Pilipino Workers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and Thai CDC, among others.

Through the initiative, KCCD will host orientations and workshops in the coming weeks, including two orientations on February 7 and 10. Resume and job readiness workshops will take place between February 21 to 22, and February 28 to March 1.

For more information, visit kccd.org.

Charlie Woo (center), the chair of the Workforce Development Board in the city of Los Angeles, expressed his support for the newly launched API JOBS Initiative at a press conference on January 26.

Majority of Pastors Are Having Difficulty Finding a Successor, Says Barna Study

The age of senior pastors has gotten older over the years, and these leaders are finding it more difficult to identify younger pastors to fill their sho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Barna Group study conducted in partnership with Pepperdine University.

The 'State of Pastors 2017' study released on January 26 showed that the median age of pastors is 54, which is 10 years older than the median of 25 years ago. It also found that only 1 out of 7 lead pastors of churches is under the age of 40.

"This is a critical issue if we're going to have the ranks of young leaders filling the pipeline of spiritual leadership today," David Kinnaman, president of the Barna Group, was quoted as saying by The Christian Post.

However, a significant majority of pastors believe that it's "becoming more difficult to identify promising pastoral candidates," as 69 percent of pastors said so in the study.

But an even larger majority — 9 out of 10 pastors — said that they would recommend the vocation to younger Christians.

The study pointed to several factors as possible reasons for the challenge of passing down the pastoral role to the younger generation. For instance, a Christianity Today report noted that the "economic pressures on middle-class and working families are being passed on to local churches, and the financial and ministry implications are immense." Moral standards in society are also becoming more and more based on self or personal preferences, rather than on external authorities such as the Bible or the church, the report said.

Despite the bleak results found in the study regarding younger pastoral leadership, Kinnaman encouraged church leaders to remain hopeful.

"The Holy Spirit has sustained the church for a couple thousand years now and shows no sign of calling it a day. Let's trust the Spirit's sustaining power not to quit, and prepare for the future," he was quoted as saying by Christianity Today.

Meanwhile, the study also found that most current pastors believe they are doing well in their respective ministries and personal lives. It showed that 91 percent of pastors believe they have a "good overall quality of life," and 88 percent say their spiritual condition is "excellent" or "good." 70 percent of pastors said they believe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are "excellent."

On Super Bowl Sunday, Most Pastors Say Their Churches Continue Normal Sunday Evening Routines

BY RACHAEL LEE

Though the Super Bowl is one of the most-watched occasions in the U.S., most pastors say their churches continue their Sunday evening routines on the day of the football game,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LifeWay Research.

The survey, released on January 26, showed that 59 percent of Protestant pastors whose churches normally have Sunday evening activities continue those events as normal on Super Bowl Sunday.

About a quarter (24 percent) said they "adjust Sunday night activities to include watching the game," and 12 percent said they "adjust Sunday night activities in other ways." Some 5 percent cancel their Sunday evening activities altogether.

"It is easy to think everyone is watching the game,"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but even during the Super Bowl, millions of Americans are doing other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them. For many, that includes attending church."

Pastors of churches with smaller congregations were more likely to say they continue their Sunday evening activities as usual, as 71 percent of churches with 0 to 49 attendees and 66 percent of churches with 50 to 99 attendees said so. Over half of churches with 100 to 249 in attendance (55 percent) and 44 percent of churches with 250 or more attendees said they will continue normal Sunday evening activities.

Younger pastors were more likely to say they cancel their Sunday evening events. Some 8 percent of pastors between the ages of 18 to 44 said their churches cancel their Sunday evening activities on Super Bowl Sunday, while 2 percent of pastors 65 years old or older said the same.

Out of the denominations, pastors of Church of Christ (78 percent), Pentecostal (65 percent), and Baptist (65 percent) churches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they will continue their Sunday night routines as usual.

"While Christians believe the truth does not change, we recognize practices often do," said McConnell. "Churches face a difficult task of navigating between wanting to remain countercultural and still reaching the culture. In this study, we find churches coming to different conclusions for their congregation and local context."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vangelical Leaders Call on Trump to Reconsider Executive Order on Refugees

Several days after President Trump issued an executive order on Friday indefinitely suspending the entry of refugees from Syria, leaders from several evangelical organizations sent a letter to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n Sunday, requesting that they reconsider the executive order.

The letter was signed by eight groups, including the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The Wesleyan Church, World Relief, and World Vision US.

"As evangelical Christians, we are guided by the Bible to be particularly concerned for the plight of refugees, individuals who have been forced to flee their countries because of threat of persecution," the letter reads.

"Evangelical churches and ministries have long played a key role in welcoming, resettling, and assisting in the integration of refugee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As such, we are troubled by the recent executive order temporarily halting refugee resettlement and dramatically reducing the number of refugees who could be considered for resettlement to the U.S.," it continues.

The groups also state in the letter that receiving refugees also provides a "vital opportunity" for churches to practice the commands in the Bible to love and show hospitality.

"We would ask that you reconsider these decisions, allowing for resettlement of refugees to resume immediately so that our churches and ministries can continue to live out our faith in this way," the letter says.

Hyepin Im, the president of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said in a separate statement that the executive order puts "our country at greater risk by alienating allies and giving ammunition to terrorists who will use it to support their hate messages and activities."

"As immigrants and as Christians, we stand with our refugee brothers and sisters from all walks of faith and nationality to keep families together," she added. "We call upon the President for change of policy and change of heart."

Other evangelicals have spoken out against the executive order as well.

On Monday, the Washington Post published a copy of a letter to the president written by Russell Moore, the president of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He wrote that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is "deeply concerned that the order will cause widespread diplomatic fallout with the Muslim world, putting Southern Baptists serving in these countries in grave danger and preventing them from serving refugees and others who are in need with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love of the gospel."

"Achiev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compassion toward refugees — one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of people among us — and protection of Americans is crucial if the United States is to remain a model for freedom around the world," Moore said.

In an article for Christianity Today, executive director of the Billy Graham Center for Evangelism Ed Stetzer expressed concern about the executive order, calling it "misguided in its understanding of fact and our reality as one global community."

Meanwhile, this particular executive order has been partially blocked by a federal judge, who issued an emergency stay on Saturday, ruling that without the stay, "there is imminent danger that ... there will be substantial and irreparable injury to the refugees, visa-holders, and other individuals from nations subject to" the executive order.

In response, the White House said that the ruling does "not undercut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All stopped visas will remain stopped. All halted admissions will remain halted. All restricted travel will remain prohibited. The executive order is a vital action toward strengthening America's borders, and therefore sovereignty. The order remains in place," a White House spokesperson said.

President Trump Nominates Judge Neil Gorsuch to Supreme Court

President Trump has nominated conservative federal appeals court Judge Neil Gorsuch to fill the Supreme Court seat which has been vacant since the passing of the late Justice Antonin Scalia.

The nomination announcement came on Tuesday night, during which Trump said, "Judge Gorsuch has outstanding legal skills, a brilliant mind, tremendous discipline and has earned bipartisan support."

"Standing here in a house of history, and acutely aware of my own imperfections, I pledge that if I am confirmed I will do all my powers permit to be a faithful servant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is great country," Gorsuch said on Tuesday.

President Donald Trump and Judge Neil Gorsuch at the White House on January 31, 2017, when Trump nominated Gorsuch to the Supreme Court. (Photo: The White House / Wikimedia / CC)

The 49-year-old Gorsuch, a conservative judge who currently sits on the federal appeals court in Denver, is the youngest judge in 25 years to receive a Supreme Court nomination. He was praised highly by Republican lawmakers following the nomination, called a "phenomenal nominee" by House Speaker Paul Ryan, and described as "the kind of person that the founders envisioned sitting on the Supreme Court" by Senator Ben Sasse of Nebraska to The Guardian.

Gorsuch has a strong educational and legal background. He earned his bachelor's from Columbia University and his law degree from Harvard, and went on to receive his doctoral degree as a Marshall scholar at Oxford University. Gorsuch also clerked for two Supreme Court justices, including Bryan White and Anthony Kennedy, and also worked as a partner at a corporate law firm in Washington, D.C.

Gorsuch's work during his legal career is noted for his clear and memorable writ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time during which it was written — traits which Scalia had been known for during his career.

"There's just an awful lot of Scalianess in Gorsuch's views and Gorsuch's opinions," John Malcolm, the director of the Heritage Foundation's Edwin Meese III Center for Legal and Judicial Studies, was quoted as saying by USA Today. "He thinks very, very deeply about the fundamental tenets of our democracy. Those are not quaint, fuzzy concepts to him."

Gorsuch is also known for his defense of religious freedom, as he sided with several religious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in significant cases such as the Hobby Lobby case and the case involving Little Sisters of the Poor, in which the plaintiffs sought an exemption from the Affordable Care Act's contraception mandate.

Meanwhile, Democratic lawmakers have expressed disapproval, saying that Gorsuch would be filling in a "stolen seat" if confirmed. Prior to Trump's election,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had nominated Merrick Garland to fill Scalia's seat, but Republicans refused to confirm the nominee.

"This is a stolen seat being filled by an illegitimate and extreme nominee, and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stand up against this assault on the court," Democratic Senator Jeff Merkley of Oregon was quoted as saying by The Guardian.

Gorsuch will need to receive 60 votes from the Senate to be confirmed. To secure the confirmation, Gorsuch would need all 52 Republican votes, as well as at least eight votes from Democrats.

"As this process now moves to the Senate, I look forward with speaking with members from both sides of the aisle, to answering their questions and to hearing their concerns," Gorsuch said Tuesday. "I consider United States Senate the greatest deliberative body in the world, and I respect the important role the Constitution affords it in the confirmation of our judges."

California Senate Introduces Bill to Include 'Nonbinary' Gender on Driver's Licenses, IDs

Democratic members of the California Senate introduced a bill on January 24 that would add a third gender category to official documents including driver's licenses and IDs.

Senate Bill 179 would allow individuals to identify as a "nonbinary" gender on their birth certificates,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and would also make it easier for them to make changes on their birth certificates and to receive a court judgment recognizing their gender change.

Current law requires individuals to have undergone "clinically appropriate treatment" for gender transition in order to receive a new birth certificate, and the same is required to receive a judgment from the superior court to recognize the change of gender.

If SB 179 is passed, those can be obtained without the requirement to have undergone treatment for gender transition. Individuals would also be able to identify as "nonbinary," instead of male or female.

"As a person who identifies as transgender and is non-binary, this piece of legislation is important to me on a personal level," said Jo Michael of Equality California. "For the first time, Californians could have accurate gender markers that truly reflect who we are."

The bill was introduced by Senator Toni Atkins and coauthored by several others including Senator Kevin de León. California would be the first state to adopt such a law should the bill pass.

Opponents of the bill, such as the California Family Council, say that it is promoting "falsehood."

The group's CEO Jonathan Keller said that such a bill conveys "that being male or female, or no gender at all is a choice each person must make, not a fact to celebrate and accept."

"Laws like this will simply erase any meaningful gender definitions, if being male or female is completely divorced from biological facts," Keller added.

Meanwhile, the issue of gender identification on official documents was brought up recently in a lawsuit when a Colorado resident, who is intersex and does not identify as male nor female, was denied a passport. At the time, lawyers representing the government cited concerns that having more than two gender choices on federal documents would make background checks and ID verification more difficult when state IDs have two gender options.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Ju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높은 용존 수소량 · 가정용 수소수기 · 강력한 환원능력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코정아쿠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불 상당 사은품)
공짜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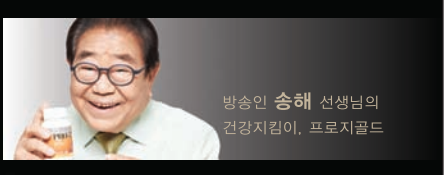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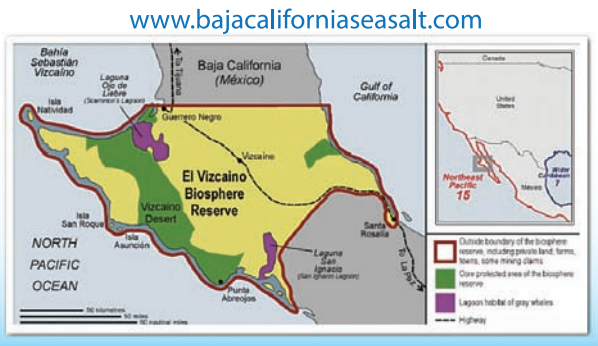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주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구입문의 213. 434. 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